

##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8년 11월 10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여러 자서전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어휘 문법 형성평가를 풀 수 있다.
  3. 조선에 관련된 읽기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8급 한자의 뜻을 알고 읽을 수 있다,
  5.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국어6-2 나, 초등한자1,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100대 민족문화상징자료, TOPIK중급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10:20	숙제 확인 및 쪽지시험(한자,관용어, 읽기자료)
2교시 10:20-11:20	자서전 읽고 이해하기
점심 11:20-11:40	
3교시 11:40-12:00	문법 수업(복습, 형성평가2)
4교시 12:00-12:40	역사수업

숙제 (다음 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1. 한자
2. 관용어
3. 읽기 자료(조선 관련)
4.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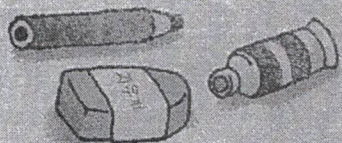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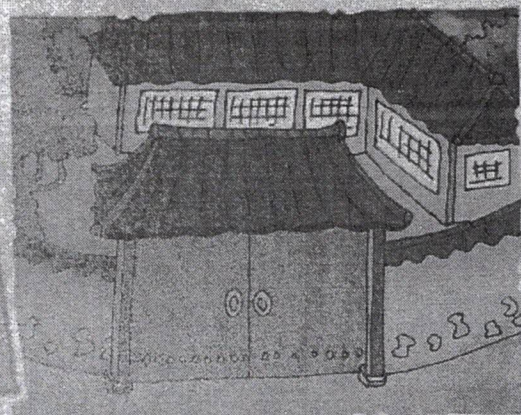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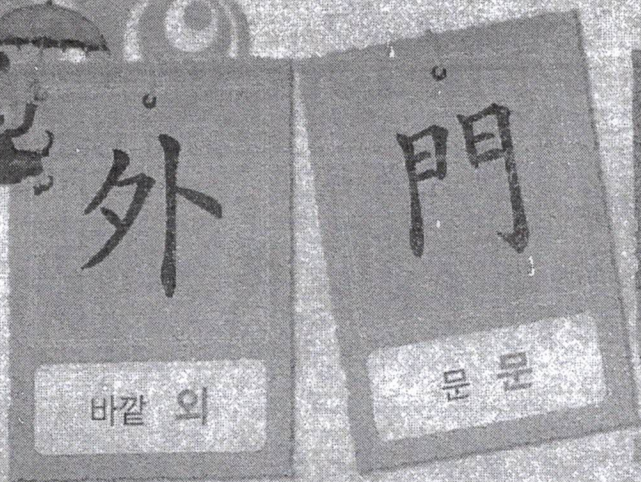
\*\*\*다음 주부터 생활국어 2-1 교과서 가져오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공부할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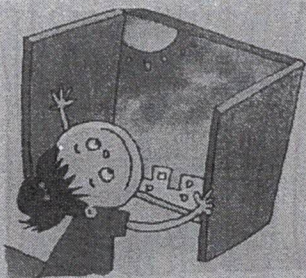
<자서전> 공부할 어휘

1. 봉양 :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심.
2. 구력 : 새끼를 드물게 떼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그릇.
3. 악정 :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는 잘못되게 하는 정치
4. 전답 : 밭과 논
5. 교정 : 학교의 마당이나 운동장
6. 지열 : 햇볕을 받아땅 표면에서 나는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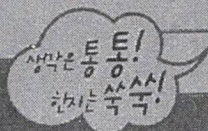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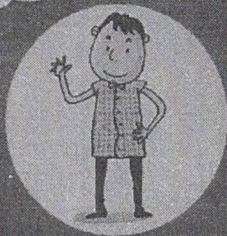
기재 학용품을 쓰지 말고, 우리 나라 학用品을 씁시다.



창門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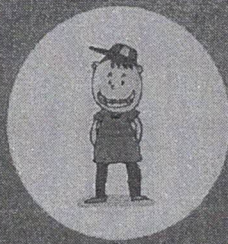


크기를 순서대로 나타낸 한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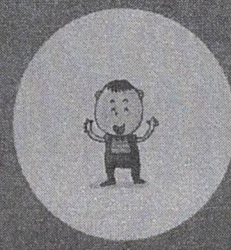
大

큰 대



中

가운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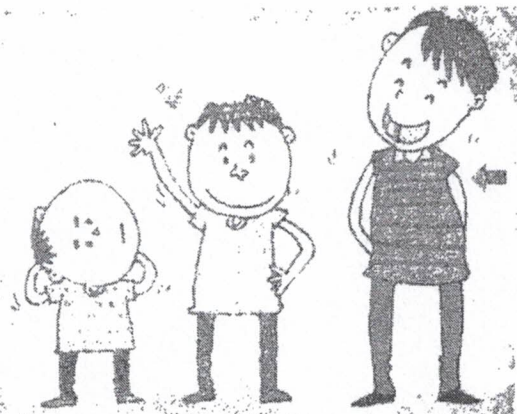
小

작을 소



#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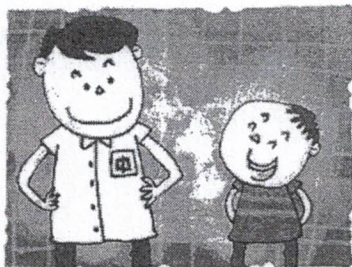
가운데 중



# 長

긴 장

活用  
어디에 쓰일까요?



형은 올해 中學生(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長화를 신습니다.

순서를  
알아봅시다

#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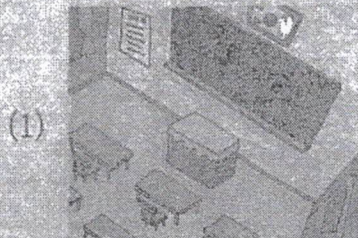
# 門

# 中

# 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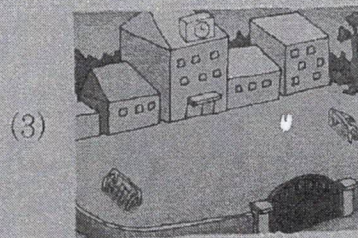
1. 그림에 맞는 한자어를 선으로 이어 봅시다.



學校



教室



先生

2. 다음 **보기**와 같이, 한자의 뜻과 음을 써 봅시다.

**보기**

中 ⇨ 가운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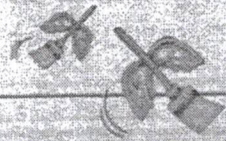
(1) 學 ⇨ ( )

(2) 先 ⇨ ( )

(3) 門 ⇨ ( )

(4) 長 ⇨ ( )





3. 한자와 알맞은 뜻과 음을 선으로 이어 봅시다.

(1) 教

• 학교 교

(2) 校

• 가르칠 교

4. 다음 밑줄 친 부분의 공통된 한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 오늘은 외삼촌의 생신입니다.
- 외제인은 우리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① 長

② 中

③ 外

④ 生

⑤ 門

5. 다음 한자어의 음을 써 봅시다.

(1) 9월 2일은 내 동생 生日(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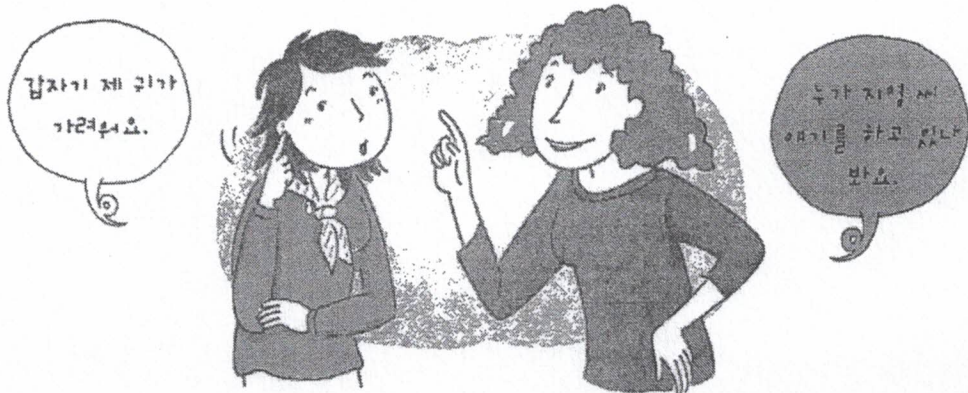
(2) 우리 教室( )은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3) 운동회에서 靑白( )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였습니다.

(4) 옛날에는 임금님과 父母( )님과 先生( )님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 대화



- 제 니 : 어제 가수 '비' 콘서트에 잘 갔다 왔어요?  
 지 영 : 아니요. 같이 가기로 한 민수가 연락도 없이 안 와서 못 갔어요.  
 제 니 : 민수 씨는 가끔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예전에 나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민수 씨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지 영 : 정말요? 사실 나도 민수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수에게 좀 실망했어요.  
 제 니 :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면 민수 씨 귀가 가렵겠지요?  
 지 영 :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 귀도 가려울까요?  
 제 니 : 하하하, 민수 씨도 지영 씨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 귀가 가렵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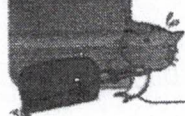
## 활용예문

- ▶ 남이 자기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는 왼쪽 귀가 가렵다고 말해요.
- ▶ 그 선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지금쯤 귀가 가려울 거야.
- ▶ 가: 왜 이렇게 귀가 가렵지?
- 나: 누가 네 얘기를 하고 있나 봐.

##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콘서트 | <input type="checkbox"/> 예전 | <input type="checkbox"/> 변명하다  | <input type="checkbox"/> 실망하다 | <input type="checkbox"/> 계속하다 | <input type="checkbox"/> 가렵다 |
| <input type="checkbox"/> 갑자기 | <input type="checkbox"/> 선배 | <input type="checkbox"/> -나 보다 |                               |                               |                              |





## 함께해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래의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고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제 남자 친구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기고 성격도 좋아요. 하지만 돈을 잘 안 써요. 그동안 한번도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남자 친구에게서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데 저만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반 한국어 선생님은 참 친절하고 수업도 잘 하십니다. 하지만 매일 숙제를 너무 많이 내 주셔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시험도 자주 보는 편이어서 늘 긴장이 돼요.



우리 남편은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 주는 좋은 남편이에요. 하지만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큰 일이에요. 특히 요즘은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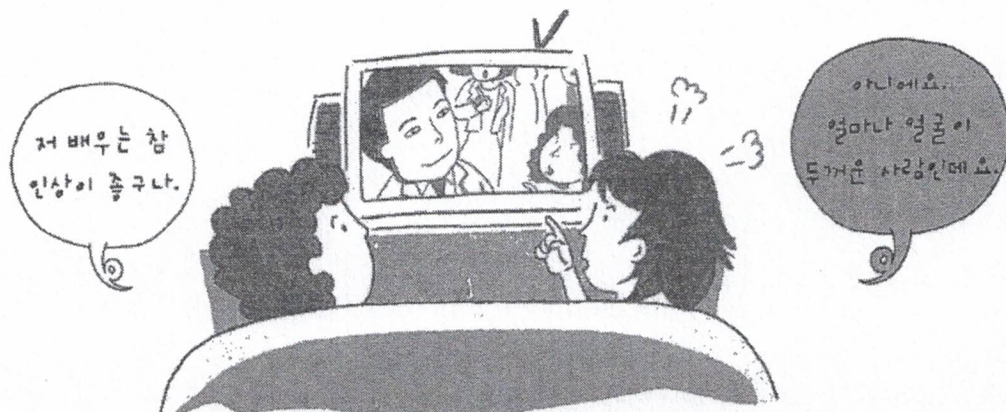
여러분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 걸음 더

- ▶ 귀가 간지럽다(=) 너희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아까부터 계속 귀가 간지러웠어.
- ▶ 귀(가) 아프다(ㄴ) 시끄러운 소리를 듣거나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어서 싫증이 나다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 ▶ 가렵다 ㄹ • 모기한테 물린 데가 계속 가려워요.  
•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좋은 드라마였어요.



# 대화



어머니: 지영아, 드라마 할 시간이니까 스포츠 뉴스 그만 보고 채널 좀 돌려봐.

지 영: 네, 알았어요. 어, 요즘 저 배우가 드라마에 다시 나와요?

어머니: 그럼, 잘생겼고 연기도 잘하잖아.

지 영: 그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음주 운전으로 구속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빨리 텔레비전에 나올 줄 몰랐어요.

어머니: 그래?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잘못을 알고 많이 반성했겠지.

지 영: 아니에요, 엄마.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 사람인데요.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저 배우는 좀 더 반성해야 해요.

\* 얼굴(이) 두껍다: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을 모르다

## 활용예문

- ▶ 물건을 팔려면 가끔은 얼굴이 두꺼워야 해요.
- ▶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다니 얼굴이 참 두꺼운 것 같아요.
- ▶ 가: 여기는 금연석인데 저 남자는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나: 참 얼굴 두꺼운 사람이네요

##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채널  | <input type="checkbox"/> 음주 운전   | <input type="checkbox"/> 구속되다 | <input type="checkbox"/> 실수하다 | <input type="checkbox"/> 반성하다 |
| <input type="checkbox"/> 얼마나 | <input type="checkbox"/> 두껍다     | <input type="checkbox"/> 공공장소 | <input type="checkbox"/> 침    | <input type="checkbox"/> 뱉다   |
| <input type="checkbox"/> 금연석 | <input type="checkbox"/> -다고 하던데 |                               |                               |                               |



## 함께해요



이경미 씨는 얼굴이 참 두꺼운 사람이에요. 아래의 그림을 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경미 씨는 얼굴이 참 두꺼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버스 안에서 남  
자 친구와 키스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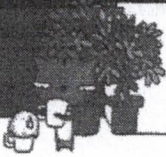


여러분 주위에는 얼굴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렇게 생각해요?

한 걸음 더

- ▶ 얼굴에 첩판(을) 깔다(=) 외국어를 배울 때는 얼굴에 첩판을 깔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 ▶ 얼굴(을) 내밀다(⇒) 참석하다  
민지는 친구 결혼식에 잠깐 얼굴을 내밀고 바로 떠났다.
- ▶ 두껍다 ㉠
  - 밖이 추우니까 나갈 때는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 왜 그렇게 사과 껍질을 두껍게 깎아요?





##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귀가 가렵다 귀가 아프다 얼굴이 두껍다 얼굴을 내밀다

- 1 가: 내일까지 그 책을 꼭 가져 와.  
나: 알았어.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_\_\_\_\_.
- 2 가: 크리스 씨가 수료식에도 \_\_\_\_\_ 지 않았어요.  
나: 아마 사정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나 봐요.
- 3 가: 정호가 커닝을 해서 시험을 잘쳤다고 해. 그래서 장학금도 받는데.  
나: 정말? 정호가 그렇게 \_\_\_\_\_ 사람인 줄 몰랐어.
- 4 가: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 재채기가 나온다고 해요.  
나: 그래요? 재미있네요. 한국에서는 \_\_\_\_\_ 라고 말해요.
- 5 가: 저 사람이 민수 씨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이에요?  
나: 네, 맞아요. 얼마나 \_\_\_\_\_ 사람인데요.
- 6 가: 왕방 씨 남자 친구가 잘생겼다고 \_\_\_\_\_ 게 들었어.  
나: 그랬어? 한번 만나 보고 싶네. 어떤 사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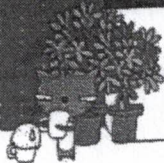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 이야기해요

## 귀가 가렵다 / 얼굴(이) 두껍다



다음을 읽고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제니: 민지 씨, 교수님께서 내 주신 과제는 끝났어요?

민지: 네, 며칠 동안 밤새워서 겨우 다 했어요.

제니: 우리 팀은 수빈 씨가 준비를 많이 해서 빨리 끝났어요.

민지: 부러워요, 우리 팀은 나 혼자 준비했어요. 경미 씨는 요즘 연애하느라고 과제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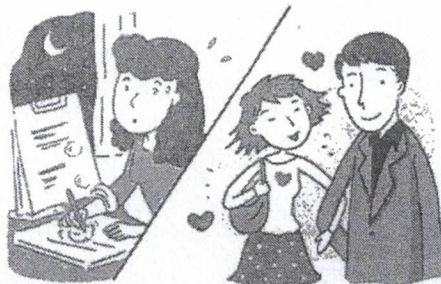
제니: 그랬군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경미 씨 귀가 가렵겠지만 경미 씨는 책임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민지: 그리고 교수님께는 혼자서 과제를 준비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니: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경미 씨는 얼굴도 참 두껍네요. 마음이 넓은 민지 씨가 이해하세요.

민지: \_\_\_\_\_

제니: \_\_\_\_\_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민지는 왜 힘들었어요?
- 2 제니는 경미의 귀가 왜 가렵겠다고 말했어요?
- 3 여러분 나라에도 귀가 가렵다는 말과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새 어휘

☐ 과제   ☐ 밤새우다   ☐ 연애하다   ☐ 책임감



선비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 선비



선비라는 말은 '어질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순우리말이에요.

선비가 되려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야 했어요. 첫째는 학문을 닦는 일이고, 둘째는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죠.

타고난 신분이 높다고 해서 저절로 선비가 될 수는 없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일지라도 오랜 시간 공부를 하여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선비가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옛 그림이나 글에 나타나 있는 선비의 모습은 대부분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있어요.

옛 선비들이 이처럼 밤낮으로 글을 읽는 것은 단지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공부를 통해 사람이 지는 도리를 깨우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지요.

옛 선비들은 공부를 해서 도리를 깨우치면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과거를 봤어요. 과거에서 급제를 한 선비들은 관리가 됐어요. 선비들





은 관직에 나아가서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곧 임금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관직에서 물러났지요.

그렇지만 선비들이 모두 관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선비 중에는 처음부터 아예 관직에는 뜻을 두지 않고 공부에만 힘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관직에 있는 선비든 공부만 하는 선비든 간에 선비들의 신념은 똑같았어요.

선비들은 평생 유교의 이념을 따랐어요. 유교의 기본 이념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많은 선비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을 일으켜 목숨을 바치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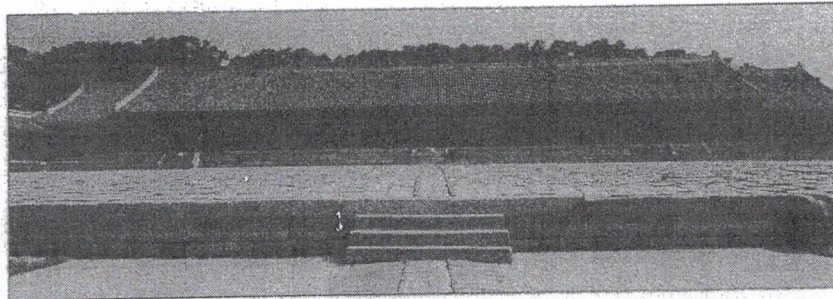
선비는 그 시대의 정신을 맨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꿈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기개 높은 사람들이랍니다.





종묘 제례는 누구에게 올리는 제사일까?

## 종묘와 종묘대제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

조선을 다스렸던 전주 이씨 가문의 후손들은 매년 5월 첫째 일요일마다 종묘에서 종묘 제례를 지내요. 이들은 예복으로 갈아입고 정성을 다해 향을 피워요. 그런 다음 절차에 따라 춤과 노래를 곁들여 매우 엄숙하게 제례를 올리지요.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 위패를 모신 사당이에요. 그리

★종묘 제례악을 연주했어요.

종묘 제례 의식의 각 절차마다 <보태평>과 <정대엄>이라는 음악을 연주해요. 이 음악에 맞춰 조선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의 <종묘악장>이라는 노래를 부르지요.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 동안 <보태평지무>와 <정대엄지무>라는 춤이 펼쳐진답니다.

고 종묘 제례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해요.

종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귀중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종묘 안에 있는 종묘 정전은 국보 제227호로 19개의 방에 19명의 왕과 30명의 왕비의 위





패가 모셔져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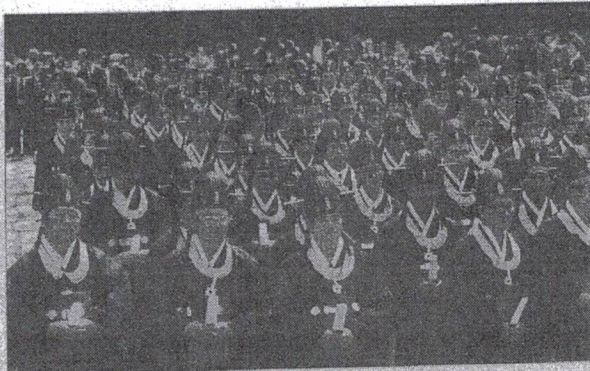
종묘 정전 서쪽에 있는 영녕전에는 왕조를 세운 태조의 아버지부터 고조할아버지까지 네 분과, 종묘 정전에 모시지 않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셔 놓았어요. 그리고 공신전에는 조선 시대의 훌륭한 신하 82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지요.

종묘 제례에 사용되는 제사 절차와 음악, 춤 등은 옛 것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1462년에 틀어 만들어진 이 제사 형식은 500년이 넘도록 거의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종묘 제례는 세계에게 가장 오래된 종합 의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종묘 제례에 쓰이는 음악을 가리켜 '종묘 제례악'이라고 하는데, 종묘 제례악은 우리나라 중요 무형 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종묘 제례악의 악곡 구성 또한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평을 듣고 있지요. 유네스코는 1995년에 종묘와 종묘 제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답니다.



▲ 종묘 제례악을 연주하는 모습.



▲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올리는 모습.



## 백자와 고려청자는 어떻게 다를까?

### 백자

조선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도자기가 바로 백자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을 강조한 조선 백자에는 조선 시대 선비 정신이 담겨 있지요.

조선백자 중에는 문양을 넣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조선 시대 사람들이 수수한 멋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간혹 문양을 넣더라도 붓으로 그려 넣어 매우 담백한 느낌을 주지요. 조선백자는 이처럼 꾸밈없는 멋을 지니고 있는 도자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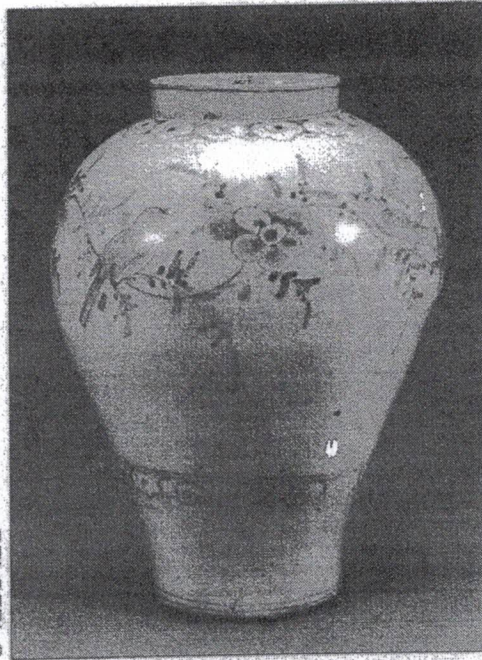
조선의 백자는 15세기경에 정교하고 단단한 명나라 백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의 백자는 중국의 백자보다 아름답다는 평을 들었지요.



세종 대왕 때에는 중국 황실로부터 조선의 백자를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기도 했대요.

이처럼 백자는





한글박물관

▲ 청화백자화조문호

훌륭한 도자기였지만 귀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위로  
는 임금에서부터 아래로는  
평범한 서민들까지 누구나  
백자를 사용했거든요.

조선 시대 중기에는 백  
자가 아주 널리 쓰이는 도  
자기였어요. 독배기, 술병,  
밥그릇, 숟가락, 꽃병 등  
일상생활용품들도 백자로  
만든 것이 많았지요.

당시 일본은 우리의 도  
자기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처럼 자기  
들도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일본인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 도공들  
을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  
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도공들을 잘 대접했어  
요. 규슈 지방에 자리 잡은 조선의 도공들은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크  
게 발전시켰어요.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임진  
왜란 때 잡혀간 조선의 도공들 덕분이랍니다.



2018년 11월 10일

## 한라반 쪽지시험

이름 :

▶ 아래 문장의 한자를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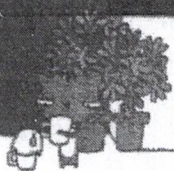
1. 靑山(        ): 풀과 나무가 무성한 푸른 산
2. 靑春(    춘 ): 새싹이 돋는 봄철, 인생의 젊은 나이
3. 白人(        ): 피부색이 흰 인종의 사람
4. 空白(공    ):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음
5. 先金(        금 ): 값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치름
6. 先天(        천 ):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지니고 있는 것
7. 生長(        장 ): 나서 자라남
8. 自生(자        ): 저절로 생겨남

▶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1. 이순신 장군이 귀선의 설계도를 보고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며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이 장군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이 성은 정조의 명에 의해 지어지고 정약용이 설계하였습니다. 이 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 1952년 왜군이 쳐들어 온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4. 이 때 왜군을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5. 일본이 두번째 쳐들어 온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6.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전함을 이끌고 쳐들어 온 왜구를 무찌른 이 전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5 국수(를) 먹다 16 배(가) 아프다



##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국수를 먹다

날을 잡다

배가 아프다

배꼽을 잡다

1 가: 어제 그 코미디 프로그램 봤어?

나: 응. 너무 재미있어서 \_\_\_\_\_고 웃었어요.

2 가: 왜 그렇게 늦게 \_\_\_\_\_?

나: 결혼을 많이 하는 달이라서 결혼식장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3 가: 승우 씨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다지요?

나: 네, 나보다 학점도 좋지 않은데 정말 \_\_\_\_\_.

4 가: 언제까지 연애만 하실 거예요?

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올해 안에 \_\_\_\_\_.

5 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가끔 \_\_\_\_\_ 때가 있어요.

나: 맞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6 가: 언제쯤 \_\_\_\_\_?

나: 저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좋은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 2회 - 형성평가



1~5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그 학교는 입학 ( )이 너무 까다로워서 들어가기가 힘들다.  
 ① 조건                      ② 요청                      ③ 정신                      ④ 예정
2. ( ) 꿈에 그리던 내 집을 10년 만에 마련했다.  
 ① 금방                      ② 마치                      ③ 드디어                      ④ 뜻밖에
3. 그는 젊은 시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풍부한 ( )을 쌓았다.  
 ① 자격                      ② 경험                      ③ 질병                      ④ 보람
4. 요즘 아내가 늦게까지 야근하기 때문에 퇴근 후 세 아이들을 혼자 ( ).  
 ① 이끈다                      ② 낳는다                      ③ 보낸다                      ④ 돌본다
5. 이번 달에는 용돈이 ( ) 은행에 저축해 두었다.  
 ① 남아서                      ② 내려서                      ③ 줄어서                      ④ 부족해서

6~9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6. 먼저 간단한 준비 운동을 마치고 물에 들어가야 한다.  
 ① 잠시                      ② 우선                      ③ 끝내                      ④ 따로
7. 이것만 끝내면 이제 일은 거의 마무리된다.  
 ① 대부분                      ② 도저히                      ③ 무조건                      ④ 어차피
8. 별로 해 준 것도 없는데 고맙게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했다.  
 ① 자랐다                      ② 나왔다                      ③ 가꾸었다                      ④ 쓰러졌다
9. 아이는 부모님께 혼이 날까 봐 성적표를 가방 안에 숨겼다.  
 ① 챙겼다                      ② 뽑았다                      ③ 드러냈다                      ④ 감추었다



10~11 다음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동사를 고르십시오.

10.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 ) 봅시다.  
그 아이는 음식을 ( ) 먹는다.  
경찰은 진짜 범인을 ( ) 위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① 가리다                      ② 만들다                      ③ 가지다                      ④ 구하다

11. 시간에 ( ) 전화를 했지만 그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아내의 기분을 ( ) 주말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은 서로 정답을 ( ) 정신이 없다.

① 채우다                      ② 맞추다                      ③ 따르다                      ④ 정하다

12~1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12. 방금 전까지 내 눈 앞에 있던 그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① 없어졌다                      ② 나타났다                      ③ 제거했다                      ④ 다가왔다

13.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는 초등학생들이 3년 새 2.5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① 성장했다고                      ② 상승했다고                      ③ 하락했다고                      ④ 감소했다고

14~18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4. 가: 선생님께서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셨다면서요?  
나: 아니에요. 저는 단지 가진 것을 조금 ( ).

① 나누던데요                      ② 나눈 것뿐이에요  
③ 나누었을 텐데요                      ④ 나눌지 몰랐어요

15. 가: 이번 출장은 어땠어요?  
나: 날씨도 좋고 ( ) 입에 안 맞아서 고생만 했어요.

① 음식마저                      ② 음식치고  
③ 음식밖에                      ④ 음식처럼



16. 가: 요즘 휴가철이라서 비행기 표 구하기가 힘들 텐데 구하셨어요?  
나: 그럴 것 같아서 한 달 전에 미리( ).
- ① 예매했군요                                  ② 예매하더라고요  
③ 예매해 두었어요                              ④ 예매하기를 바라요
17. 가: 저랑 같이 자연 체험 캠프에 가지 않으실래요?  
나: 좋아요. 신선한 음식도( ) 참가 기념으로 나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가고 싶어요.
- ① 먹을 수 있으므로                              ② 먹을 수 있는 길에  
③ 먹을 수 있으나마나                            ④ 먹을 수 있는 데다가
18. 가: 그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나: 맞아요. 그런( )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요.
- ① 사람이야말로                                  ② 사람이어서야  
③ 사람이지만만                                  ④ 사람이라고 해서

19~2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19. ① 대리님, 저는 사장님 좀 뵙고 갈게요.  
② 손님, 잠깐만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③ 김 회장님은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셨다.  
④ 한 달 전부터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걱정이 많습니다.
20. ① 그녀는 마치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요.  
② 그 일은 이미 했으니까 다른 일을 하세요.  
③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화를 겨우 보지 못했다.  
④ 탕 종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고 싶어요.
21. ① 수백 권의 책으로 방을 가득 채웠다.  
② 갑자기 문이 열고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  
③ 소비를 줄이면서 돈이 좀 모이기 시작했다.  
④ 김 과장 책상 위에는 늘 애인 사진이 놓여 있다.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프영 씨가 한국으로 시집온 지도 벌써 3년이 됐군요.

나: 그래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국 요리도 ( ㉠ ) 잘해요.  
모두 정미 씨 덕분이에요.

가: 뭘요. 앞으로도 ( ㉡ )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27.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끝내                      ② 마침                      ③ 제법                      ④ 어찌면

28.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살아가면서                      ② 살다 보니까  
③ 사는 대신에                      ④ 사는 게 아니라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결혼하자마자 독일로 떠난 친구에게서 잠시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친구는 이번  
에 못 보면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 ㉠ )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만나기로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어디서  
( ㉡ ) 몰랐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닿아서 10여명이 모이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25년이 지났으니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친구도 있을 것이다. 책임감  
이 강했던 영자, ( ㉢ ) 예쁘기도 했던 귀자, 늘 맛있는 도시락을 싸와 친구들과 나눠 먹  
기를 좋아했던 미영이 등 내 기억 속에서는 귀 밑 7cm 단발머리 소녀인데 40대 중년이 되어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렌다.

29.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누워서 떡 먹기라고                      ②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③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④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고

30.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사는지조차 - 똑똑하도록                      ② 사는 데다가 - 똑똑하도록  
③ 사는지조차 - 똑똑한 데다가                      ④ 사는 데다가 - 똑똑한 데다가